

## 자동차 응급 조치 요령

### 1.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

우선 타이어의 커버를 뺀 다음 휠너트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잭으로 차를 들어올린다.

펑크난 타이어가 2~3cm쯤 올라가면 휠너트를 빼고 스페어타이어를 끼운다.

### 2. 엑셀러레이터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럴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 뒤 차와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비상 경고등을 켜고 살며시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때, 엔진을 곧바로 정지시켜야 한다.

### 3. 퓨즈가 끊어졌을 때

깜빡이가 켜지지 않는다든지 라디오가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퓨즈를 열어 점검한다. 예비 퓨즈가 없다면 담배 은박지나 주방 호일로 대신할 수 있다.

### 4. 엔진이 꺼졌을 때

대부분 카뷰레터 이상이다. 먼저 엑셀러레이터를 완전히 밟고 실린더를 말린 다음 물 적신 헝겊으로 기화기 주변을 닦아 식힌다. 연료 펌프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다.

### 5. 오버히트할 때

기어는 중립에 놓고 절대로 엔진을 정지시켜서는 안된다. 그늘진 곳에서 후드를 열어 엔진을 식히며 라디에이터 캡을 열 때에는 김을 뺀 다음 천천히 열도록 한다. 냉각수가 없으면 개울물이나 증류수를 사용해도 된다.

### 6. 라디에이터 호스가 찢어졌을 때

누출된 냉각수가 엔진에 튀어서 김이 난다. 이때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안전장소에 정차시키고 수증기가 사라진 다음 라디에이터 호스의 찢겨진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닦아낸 다음 고무 테이프를 감으며 엔진이 식으면 냉각수를 보충한다. 단, 고무테이프는 임시 방편이므로 정비공장으로 가야 한다.

### 7. 기름이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차에 원조를 청하며 지나가는 차도 없는 지역에서는 연료 탱크 밑바닥의 드레인 나사를 풀고 뚜껑을 열어 밑바닥에 남은 휘발유를 받아 연료펌프를 호수로 연결시켜 응급연료탱크로 삼도록 한다.

### 8. 팬벨트가 끊어졌을 때

클립이나 끈으로 찢어진 부분을 묶어주며 스타킹을 활용해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오버히트에 유의해야 한다.

### 9.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을 때

비오는 날 와이퍼가 갑자기 작동되지 않는다면 시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운전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와이퍼용 휴즈나 모타 불량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담배가루나 물기 많은 나뭇잎 등을 많이 뭉쳐서 창 유리를 문지르면 빗물이 주룩주룩하고 창유리를 타고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시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비누가 있다면 앞유리에 비눗물을 발라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된다.

### 10. 온 소리가 멈추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말고 퓨즈 단자의 혼으로 연결된 퓨즈를

뽑아내면 혼 소리는 멈춰진다. 그러나 쇼트된 곳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정비소를 찾아가야 한다.

### 11. 엔진이 멈추지 않을 때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갑자기 세게 밟아 주면 기화기로부터 휘발유를 많이 뽑아주므로 순간적으로 혼합가스가 농후해져서 이상연소가 멎게 된다.

이 방법으로도 멈추지 않으면 기어를 톱에 놓고 클러치 페달을 때면 틀림없이 엔진이 멈추어질 것이다.

### 12. 혼 소리가 짝을 때

먼저 혼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를 풀어서 접속 상태를 점검한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는 핸들의 혼버튼을 분해하여 접점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된다.

### 13. 주행 중에 이상한 냄새가 날 때

고무타는 냄새가 날 경우 전기 계통의 누전이 그 원인이다. 이 때는 배터리 케이블을 떼어놓은 후에 냄새나는 부분을 찾도록 한다.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고 벗겨지기 쉬운 곳은 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오일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주행을 멈추고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우선 유압계와 수온계를 확인해야 한다. 무리하게 주행할 경우 엔진을 못 쓰게 만들 위험이 있다. 대부분은 엔진 오일 부족으로 엔진 마찰부에서 오일이 타거나 오버히트로 인한 것이다. 주행 중 달콤한 냄새는 부동액이 썰 때 난다.

달콤한 냄새가 나면 냉각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볼도록 한다.

### 14. 앞유리에 성에가 끼거나 김이 서렸을 때

#### (1) 성에 제거 방법

엔진을 작동시켜 실내 난방을 통해 스스로 녹아내

리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성에 제거기로 긁어내면 된다.

성에 제거기가 없을 시 플라스틱, 책받침 또는 카세트 테이프 등을 사용해도 되나 끝이 날카로운 철판 등은 유리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2) 성에 김 방지 방법

저녁 무렵 주차시 차문을 활짝 열어 실내의 더운 공기를 모두 빼내면 실내의 공기의 온도 차이가 적어 성에가 끼지 않거나 훨씬 적게 끼며 앞유리에 신문지나 천등을 덮어두면 효과적이다.

#### (3) 유리창에 김이 서릴 때

가.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서 김을 제거한다.

나. 유리창을 약간 열어 외부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면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므로 김이 서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 비누나 샴푸를 수건에 묻혀 유리창 안쪽에 발라두면 김이 서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